

# 완도군, 전남형 동행 일자리사업 선정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이달까지 20명 모집…160시간 교육·훈련

완도군은 '지역과 주민이 행복한 2020년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에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 양성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남형 동행 일자리 사업은 도와 시군이 교육, 취업 연계, 창업 지원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최적화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2월,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에 따른 해양네거 관광지 조성 등을 배경으로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공모에 참여하였으며,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 수행은 해양구조단 완도지역대이며, 사업비는 총 6천 6백만 원(도비 3천 3백만 원, 군비 3천 3백만 원)이다.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 양성은 미취업자나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4월까지 20명을 모집, 과정별 10일, 총 160시간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에는 자격증을 취득하면 해양경찰 시험에 응시할 시 가산점 부여와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레저 시설 취업 또는 스키스쿠버 강사로 일할 수도 있고, 스키스쿠버 교육 체험장, 스키스쿠버샵 등 수상레저 분야 창업도 가능하다.

또한 향후 해양치유산업이 본격 추진되면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수욕장 등의 안전을 책임질 전문 인



명구조요원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관련 기업 및 부서와 협력하여 교육생들이 취·창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인명구조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안전하고 예방과 일자리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광수 기자

## 함평군, 취약계층에 11억 7백만원 긴급 생활 지원

수급자·차상위 등 1939가구에 지역상품권 배부

함평군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취약계층을 위해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함평군은 지난 31일 지역취약계층 1천939개 가구에 총 11억 7백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전액 지역화폐(함평시랑상품권)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했던 만큼 이번 긴급생활 지원금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

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함평군이 이번에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발표한 긴급재난 지원금과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한다면 함평군 긴급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의 지역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좁다.

반면 지원액의 경우 함평군 긴급생활지원금이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0만 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 계층 108만 원 ▲시설 수급자(1인)는 52만 원 등으로 책정돼 정부안(4인 가구 기준 100만원)보다는 다소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지원금 모두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중복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총 4개월분이 지급된다. 군은 정책의 시의성을 고려, 집중 배부 기간을 설정해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한 유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강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지원

강진군이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신청자를 4월 6일부터 접수받는다.

'신혼부부·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

로써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와 강진군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시행일 기준 무주택자이고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2019년 12월부터 2020년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7년 이하 신혼부부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와 미성년 3자녀 이상(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을 둔 다자녀 가정이다.

2020년 올해 신규사업 대상자는 총 6가구를 선발하며 4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나 사업량 6가구 소진시까지 선착순 모집 한다.

강진=김영일 기자

## 목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사업 신청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사항 ▲10억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원 이상 연구용역 등이다.

앞으로 시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로 운영할 방침으로, 목포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정책실명제), 이메일(mokpopplan@korea.kr), 우편(목포시 양을로 203, 목포시청 기획예산과) 등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제정된 '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61건을 심의·의결하고 사업내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 장흥군 관산읍, 코로나19 차단 '총력'

장흥군 관산읍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41개 마을이장들이 정기적으로 자체 방역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마을 이장들은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마을 자체 방역을 하고, 이장협의회 임원진들은 인구 밀집 지역을 집중 방역한다.

최근에는 천관관광시장, 버스터미널, 종교단체, 다중집합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중심으로 방역을 실시했다.

김이석 관산읍 이장협의회장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관산읍 이장협의회는 최선을 다해 방역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 무안군, 무안읍 5일장 오는 4일 하루 휴장

무안전통시장 상인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인 무안전통시장을 4월 4일 하루 휴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지금까지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

해 매주 3회 이상 시장 곳곳을 방역 소독하고 5일장에는 손 소독과 마스크 착용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시장 내 방송을 통해 코로나19 행동수칙 등을 안내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 MEGABOX 광주첨단점

1관	주디
2관	인비저블맨
3관	바이올렛 에버가든, 인비저블맨
4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5관	정직한 후보
6관	페임
7관	다크 워터스
8관	1917
9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세인트 아가타
10관	라리랜드

문의전화 1544-0070  
광주광역시 광산구 앱코로 35(쌍암동)



## LOTTE CINEMA 광주(백화점)

4관	월드워2, 인비저블맨, 타크 워터스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씨들, 1917
6관	주디, 온다

문의전화 1544-8855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68(대인동, 롯데백화점 9층)